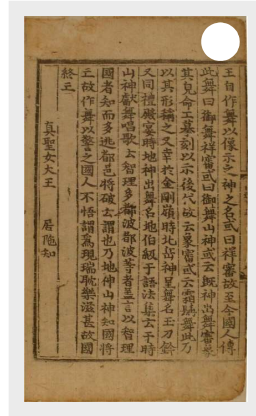


진성여왕[眞聖女王] 무너져가는 신라의 마지막 여왕

미상 ~ 897년(진성왕 11)



삼국유사 진성여대왕 거타지 기사

/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 /

1 개요

진성여왕(眞聖女王)은 신라의 제51대(재위: 887~897) 왕이다. 경문왕(景文王)의 딸이며, 신라의 역사에서는 선덕여왕(善德女王)·진덕여왕(眞德女王)을 이어 3번째 여왕이 된다. 즉위 초 전왕(前王)들의 정책을 계승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든든한 정치적 후원자였던 숙부 위홍(魏弘)이 사망하고, 이후 정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889년(진성왕 3)에는 신라 체제 붕괴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농민 반란이 발생하였다. 이후 헌강왕(憲康王)의 서자 요(峽)를 태자로 삼아 왕위를 물려주었다.

2 진성여왕의 왕위계승

진성여왕의 성은 김(金)이며 이름은 만(曼)이다. [관련사료](#) 『삼국유사』에는 이름을 만헌(曼憲)이라고 전하며, [관련사료](#) 최치원의 『고운집(孤雲集)』 「사사위표(謝嗣位表)」에는 탄(坦)으로 기록되어 있다. [관련사료](#) 제48대 경문왕(景文王)과 제47대 헌안왕의 딸인 문의왕후(文懿王后)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제49대 헌강왕과 제50대 정강왕의 여동생이다. 진성여왕은 아버지 경문왕과 오빠인 헌강왕·정강왕을 이어 왕위에 올랐다. 여자로서 왕위에 오른 것은 신라사(新羅史)에서 선덕여왕·진덕여왕에 이어 3번째이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진성여왕의 왕위계승에 대해서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에 그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관련사료](#) 기록에 따르면 정강왕은 왕위를 이을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병에 걸리자 여동생인 진성여왕의 성품이 명민하고 골격이 장부와 같기에 왕에 걸맞고, 또 과거 선덕여왕·진덕여왕이 왕위에 올랐던 사례도 있음을 들어 진성여왕을 왕위계승자로 지목하였다. 이처럼 진성여왕은 전왕(前王)인 정강왕의 유조를 통해 왕위에 올랐다.

진성여왕은 전왕의 유조를 통해 왕위에 올랐으나, '여왕'의 즉위는 사실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진성여왕의 아버지인 경문왕의 경우 헌안왕의 사위로서 헌안왕의 유조를 통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 헌안왕의 유조의 내용은 정강왕의 유조와 사뭇 다르다. 헌안왕은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없자 두 명의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의 경우는 암탉이 새벽을 알리는 일과 같아 본받을 수 없다"라고 하며 왕위를 사위인 경문왕에게 물려 주었다. [관련사료](#)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의 사례가 정강왕의 유조에서는 여왕 즉위의 근거가 된 것에 반해, 그 이전